

대림 제1주일

기도서 P. 206 A해

- 1독 (이 사 2, 1-5절)
- 2독 (로 마 13, 11-14절)
- 복음 (마 태 24, 37-44절)

숲정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훈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칼론□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김 환 철 신부

죄는 인간이 저질러 놓고 속죄는 하느님이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랑을 아쉬워하는 편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 편인성 싶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댓가를 치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무참히 십자가에 처형을 했음에도 그리스도는 “아들이 안심하라. 나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마태오 11, 28) 하시니 이토록 인간을 사랑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음인지...?

분명히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모양이다. 아마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나보다. 우리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격을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인간의 신성성(神聖性)을 옹호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가? 만일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고린토 전3, 15-16)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이 세상의 지성소는 인간인데 틀림없다. 하느님께서도 이런 인간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경멸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더니—공의회 판결(마태오5, 22)이 무섭고 하느님의 심판(마태오 7, 2)이 두렵다.

구약시대 이교도들은 인간을 제외한 신전이나 성지 등에 종교의 바탕을 두었지만 예수께서는 인간에게만이 그 신성성(神聖性)을 바탕으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해방(解放)은 이교도들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황급히 이교도적인 것으로 전락(轉落)해져가는 감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나실 때부터 중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그리스도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져 간다. 어느 한 교우가 떨어뜨린 모자를 초년(初年) 신부가 주으려 하니가 老 사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오? 품위를 존중해야 하오” 하더라는 이야기다. 예수님을 지배할 자가 없었기에 다행이었지 있었더라면 제자의 말은 결코 씻기지 못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대림절에 접어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노라니 「쿠오바디스」영화 제목이 생각난다.

“주어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니 나 그를 위해 죽으려 세상에 간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자세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음은 높은 이상, 곧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 희망이 있는 사람은 굳세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바로 그것이다.

오늘부터 교회 전례력은 대림절(待臨節)을 가리킨다. 성탄절을 앞둔 이 4주간 동안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와 희망을 배운다.

대림절이면, 우리는 또한,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높은 산과 작은 피는 깎아내려/좁은 길이 곧아지며/좁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은 인류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 4-6).

요사이 전주지방은 귀한 손님, 새마을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스럽다. 그 모습을 보자면 바로 위의 성경말씀이 연상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신앙생활이 비교가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 주위는 길을 닦고, 고르게 하며, 패인 곳을 메우는 포장사업과 깨끗하게 하는 페인트 사업이, 한창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자, 크리스찬인 너, 이 대림 4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화장만 고치느라 바쁘게, 옷만 갈아입느라 정성없이 지낼 것인가? 아니면, 떠들석한 환영없이 조용히 오시는 주님을, 회절한 무덤처럼 시골 반짝하게 맞을 것인가?

왜 그리스도는 중증에서 나시지 않았던가? 왜 그리스도께는 태어날 여관방 하나도 없었던가? 왜 그리스도의 탄생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던 목동들에게 맨먼저 알려졌을까? 왜 그리스도는 죽어서 문힐 무덤조차 없었던가?

당신은 이 대림절에 무슨 준비를 하여, 누구와 성탄의 기쁨을 나눌 것인가?

숲정이 산책





한국 가톨릭 농민회

추수 감사제 강론 요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는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주최한 <추수 감사제>미사가 봉헌 되었다. 이어 4시부터는 대전 가톨릭 문화관 강당에서 <쌀 생산비 조사 보고대회>와 <농민의 밤>행사가 있었고, 22일 오전 9시부터는 「비료값 문제 · 농협 문제 · 수매 정책에 대한 문제 · 함평 고구마 사건」등 <농민 문제 사례 분석>이 있었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풍년임에도 곡가 정책의 문제가 주는 부담을 안은채 십자가와 農者 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선두로 농악대의 가락 속에 각 교구의 농민회 지도신부들과 두 분의 주교(池學淳, 金在德), 농민회 총재 이동호 아바스가 입장하여 추수 감사제의 막이 올랐다. 다음은 김주교님의 강론 요지이다.

예수께서는 5천명을 먹으신 기적을 행하신 바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봉헌인 것이다. 미소하지만 나름대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 그 전부를 예수께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 적은 봉헌을 5천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으로 배부신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봉헌이 정성스러운만큼 하느님께서서는 더욱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마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톨릭 농민회는 교회를 배경으로 한 농민 운동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인 농민 운동을 하는 교회 단체인 것이다. 여기서 교회의 복음화 방향에 대해 잠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회의 두 극단적인 모습이 있다. 하나는 보수적(保守的)인 그것이다. 요한 복음 18장에 나오는 성경말씀—“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것이 아닙니다.”—를 잘못 해석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현실을 강그리 무시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것이다. 오직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겠다는 주장이다. 커다란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술 혁명과 세속화로 이 사회는 끝장이라는 비관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뼈터 부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모두 너무나 양극단을 걷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과거의 복음화는 내세(來世)에 치중했었다. 그리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다. 현실, 소위 世俗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 가지 원수(三仇)로 취급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현재(現世)에 치중하고 있다. 현실 세계를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긍정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 구원할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복음화의 대상은 우리 개인 하나 하나요, 가정·사회·국가인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이 복음화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겐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에겐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는”(루가 4, 18) 인간 향상을 추구하는

교회인 것이다. 질병과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교회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교활동무대는 <교회안>이 아닌 <이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도 「사회안의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안의 사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를 죄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이세상에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바탕위에서 가톨릭 농민회에 몇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항상 교회의 선교방법이나 그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랑과 정의의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식제발과 연구활동에 더욱 치중하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장하고 바람직한 일이었다. 농협문제에 대한 연구라던가 쌀 생산비 조사 사업등 어려운 일을 많이 해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연구과제에 농촌 새마을 운동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농촌 새마을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도 연구해서 새마을 운동이 거두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앞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인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국민이 먹을 식량을 생산해 내고 공업원료의 일부마저 생산해내고 있다. 설블리 이용 당하지 마시오!

가톨릭 농민회원인 여러분은 농촌사회와 이 민족의 번영과 향상을 위해 일해주시리라 믿으며 당부하는 바이다.

(文責在記)

-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 하느님의 것인 농산물이 제 대접을 받게 해 주소서.
- 양심수인(良心囚人)들을...
-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하소서.
- 이리와 장성의 피해자들도...
- 농악 반주속에 각 지방의 특산물이 봉헌되고 미사는 계속 되었다.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리경 문 학 원

◎이역 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반주법(명곡, 가요), 성악(독창, 합창), 출장지도
학성학, 대학진학자 발성지도
가수지망생,



전자울겐, 피아노

개 인 지 도(3-5388)

이일규 (알로이시오) 이삭회장

전주소방서 북방 70미터 기린전제2층

□ 성서교실 25 □



요한 3서

김 성 진

요한 2서와 함께 집필장소와 연대 저자가 같은 이 서간은 교회 문제에 관해서 장로가 그의 친구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자는 자기의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한 교회안에 정주하여 대단히 존경을 받던 분임에는 틀림없다. 교회 전통은 저자를 사도 요한 내지 그 제자들의 작품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C 말경 에베소 지방에서 쓰여진 이 서간은 어떤 지방교회에 야심이 많고 거만한 디오트레페란 자가 장로의 권할을 무시하고, 그가 보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장로는 이 편지를 데메트리오를 통하여 한 교회의 책임자인 듯한 가이오에게 보냈다.

이 서간의 내용은 가이오가 교우들을 위해서 특히 순회 선교사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돌보아 주고 있음을 기쁘게 여기며(3-8절),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 분열을 불러 일으키는 디오트레페의 야심을 폭로하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쫓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9-11절) 그리고 데메트리오에 대한 신임을 진리 자체를 들어 증거하고 있다(12절).

이 서간에서 우리는 교회안의 훌륭한 신자들과 말쑥한 신자들 사이에서와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아 보며 순회하면서 당하는 장로들의 고충을 알 수 있다. 이 서간이 의도 하는 것은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나 그노시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충실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보존하려는 것이다.

● 이리 참사에 보내주신 성금 내역 ●

청주교구 204,500원, 광주대교구 30만원, 제주교구 10만원, 서울 까리따스 사회 복지회 30만원, 중앙 방지거 3회 3만원, 순천 대리교구 의류 6포대, 부산 성분도 병원 및 수녀회 20만원, 춘천 성심 수녀회 205,000원, 서울 가톨릭 여성 연합회 156,600원, 박진량 신부 1만원, 울산성당 오수영신부 5만원, 명동대성당 김몽은신부 50만원, 샤르트르 바오로 수도회 5만원, 성 바오로 서원 이웃돕기 모금함 4,460원, 전주 가톨릭 여학생관 2만원, 돈보스코 센터 윤파로 2만원,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2만원, 전주 바오로 서원 9'460원, 화산 성모 성심회 1만원, 중앙 성모유치원 2만원, 금산 27,610원, 남원 34,595원, 운봉 3,555원, 임실 14,010원, 장계 20,175원, 장수 7,010원, 진안 41,565원, 대야 17,590원, 둔율동 97,025원, 용안 16,420원, 월명동 44,510원, 팔마 38,055원, 함열 21,585원, 화산 15,200원, 고창 18,120원, 감제 15,065원, 부안 18,500원, 수류 13,000원, 신태인 15,730원, 정읍 56,655원, 여산 17,115원, 황등 18,505원, 중앙 139,523원, 노송 54,696원, 덕진 13,530원, 북자 28,350원, 서학 36,760원, 순정이 30,250원, 전동 124,050원, 고산 20,925원, 창인동 85,105원, 삼례45,110원, 대구 수성본당 전신부 5만원, 무주 43,010원

요심이 (226) 김병호

오늘이 순정이 창간 5주년이지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해버리자



내귀와 눈을 없애주세요

왜?



5년간 살아보니까 안보고 안듣고사는 것이 편할것 같아서요



□ 개업 안내 □
벡타이, Y서존,
양말, 스킨도산매
한 바 다
박 종 철(야아킵)
이 윤 레(메테사)
전주시 중앙동
신세계 테파트 ←→ 구라파 제과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명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신사·숙녀복, 아동복 다량구비□

천사양품

박 현 주(메테사)

☎ 7055번

남부 시장 내 증간지점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로, 스킨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송의과 맞은편 2-3170.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난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1, 9002, 9003, 9004번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이리 참사에 대한 성금, 감사 합니다... (접수 내역은 3면에)

- 78년도 사목교서 연수회(29일<화>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교구내 사제단, 사도회장단, 각 기관장, 수도자들은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 바람
- 사회 정의 세미나(28일<월>오전10시, 가톨릭 센터)
①주제...구약 성서에서 보는 사회 정의,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사회정의, 노동문제에 대한 사례보고
②참가대상...교구 내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대표(관심있는 평신도 포함)
- 11월 정의 평화 미사(28일<월> 오후 7시반, 중앙성당, 주례: 김계덕 주교)
①전 주시내 본당은 당일 저녁미사를 없이하고 모든 신자들이 정의평화 기원미사에 참여토록 할것
②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및 각 기관과 액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 오늘의 행사...제2지구 동변대회(오후 2시, 둔율동), 제3지구 학생회(오후 2시, 황등)
- 77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 축하 엠베스티(국제 사면 위원회)강연회...12월 5일 오후 7시, 센터
주제및강사...①편견과 싸우는 엠베스티(윤현목사-전남 순천 출생, 엠베스티 전무이사)
②양심수인(한승원 前 변호사-전북 진안출생, 전북법대출생, 엠베스타 이사)
- 가톨릭 약사회 연수회 겸 우정의 모임(28일<월>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바쁘실테지만 오랜만에 또 만나서 우정도 나누고 공부도 해봅시다
- 형제회 전북지구 율례회(오늘 오후 3시, 노송성당) 각 형제회의 간부 전원 참석바람
□화재를 당하신 이철연(방지거)신부님께 보내드리는 성금...중앙 방지거 3회(1만원), 중앙(2만원), 노송(13, 215원), 덕진·복자·서학동·숲정이(각1만원), 전동(2만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임복석

- 율례회 ① 사도회: 27일 공식미사 후, 강당
② 애령회: 30일<수> 밤 8시
③ 어머니 합창단: 12월 1일<목> 오전 10시반
④ 성심 부녀회: 12월 2일<금> 오전 11시
 - 대림절을 뜻있게! 평일미사에 참석하십시오
 - 성탄 영세: 12월 10일<토> 저녁 7시
※ 영세자 합동교리: 12월 5~7일, 할고: 12월 8-9일
 -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9, 523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애령회의 날, 기도부대 율례회: 오늘
- 공소판공: 12월 1일<목>~3일<토>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사도회 확대회의: 12월 4일 공식미사 후
- 판공 일정 안내: 진북동 1동 1반-7일<수>, 2동 1반-6일<화>, 2-5반-8일<목>, 3-4반-9일<금>, 6-7반-13일<화>/서신동 1구 1-2반-14일<수>, 2구 1반-15일<목>/태평동 1반-16일<금>
- 젊은이의 모임: 28일<월> 오후 7시 반
- 불우 이웃돕기 폐품수집 학생회에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 재속 형제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청신회원 교양강좌: 오늘 저녁 5시부터
강사-장마리엔마누엘 수녀님(성체회 교육장수녀)
 - 유아 영세식: 12월 3일<토> 오후 2시 반,
대부모 모시고
 - 고백성사: 주일 각 미사 30분전, 평일 각 미사 15분 전후
 - 반상회 실시: 중노 1가 구역-11월 28일<월>~12월 1일<목>
- 지난주 봉헌금: 54, 696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 사도회 총회: <예산·결산, 임원선출> 오늘 오후 2시 유치원에서
- 제2차 묵상회: 12월 3~4일(오후 3시), 유치원 강당
대상-남녀 교우, 식사비-1천원
- 교리교실 공개전시: 10시미사 후
- 중·고생 묵상회: 12월 4일 오전 9시, 파티마 성당
식사비-500원
- 성 가정회 피정: 12월 15일~16일(오후 1시 출발)
광주 피정의 집에서, 회비-3,500원
- 루르드의 성모 동굴 축성: 12월 8일 오후 2시,
김 주교님 주례
-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반
- 가정 심방: 12월 1일부터, 파티마 성당 전립기념
액자 가정 선물
- 판공 성사: 주일과 평일 아침 저녁미사 전후
- 새 성당 완납자 명단(서완산동): 서정수, 윤영섭,
황희대, 김명배, 강수희, 소병덕, 정영호, 윤성여,
김양원, 석란수, 홍논나, 조우순, 김순이, 차욱임,
조형수

□ 예수님 평화상 건립기금: 장준수(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54, 0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 청년회 모임: 매주일 저녁 7시
 - 학생회 임원 모임: 공식미사 후
- 신축리금 신입-부녀회(16만원)
총계 11, 294, 0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11월 28일-박상기, 29일-박노안, 30일-유덕렬, 12월 1일-조 가타리나, 2일-이 다시안나, 3일-조 엘리사벳, 7일-유 요셉, 8일-캐 아네스, 9일-김화영
- 사도회 상임 위원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각 분과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